

국산 부품·소재 중국시장 점유율 1위

현대경제연구원, 1/4분기 50.9%로 확대 ... 일본·타이완 제치고 왕좌

중국의 부품·소재 시장에서 국산이 일본의 점유율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.

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5월18일 <최근 수출 증가 배경과 전망> 보고서에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분석해 2010년 1/4분기 중국 부품·소재 시장에서 국산의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

2007년 이후 3위에 머물렀으나 2008년 4/4분기 타이완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데 이어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 온 일본마저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.

김민정 연구위원은 “부품·소재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/4분기 44.8%에서 2010년 1/4분기 50.9%로 급증하는 등 완성재보다 부품과 소재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,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심해져 중국의 미국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의 부품·소재 중국수출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9>